

무주군, 국·도비 1730억원 확보

전년 대비 182억원 증가... 지역 경쟁력 향상·주민 삶의 질 개선 집중

무주군이 2021년 군정살림에 국·도비 예산 1,730억원을 보태며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실행 기반을 공고히 했다.

무주군이 확보한 2021년 국·도비는 전년 대비 182억원이 증가(11.7% 증가)한 규모로, 무주군은 이를 토대로 ▲관광과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생활 SOC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등에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도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했다"며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지역에 숨을 불어넣으며 무주발전의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

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1년 주요 국·도비 사업으로 ▲진안-무주 GEOFRIEND 탐사 일주일여행 프로젝트(총 사업비 21억7,000만원) 2021년 소요 사업비 9,000만원)와 ▲남대천 주변경관조성사업(총 사업비 194억원) 2021년 소요 사업비 12억원), ▲삼유천 재해복구사업(총 사업비 255억4,000만원) 2021년 소요사업비 206억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75억 2021년 3억5,0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 북함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총 사업비 154억2,000여만원) 2021년 소요 사업비 18억1,000만원)을 비롯한 반디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총 사업비 39억2,000여만원) 2021년 소요 사업비 5,000만원),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총 사업비 196억1,000만원) 2021년

소요 사업비 19억원), 태권마을 및 진입도로 조성사업(총 사업비 122억 4,000만원) 2021년 소요 사업비 18억 5,000만원) 등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무주군 2021년 예산은 총 4,3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9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무주군은 농업 분야에 688억원(15.99%), 사회복지·보건 분야 792억원(18.1%),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87억원(8.99%)을 편성했으며, ▲일반 공공행정, 교육, 안전 등 분야에는 283억원(6.48%), ▲환경 분야 668억원(15.25%), ▲산업 및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95억원(2.17%),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180억원(4.16%),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00억원(9.33%)을 편성했다. 이외 예비비와 기타 부문에 685억원(15.68%)을 편성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종호 산림청장, 진안 현장방문

전춘성 군수와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등 공유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8일 박종호 산림청장과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원에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 827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기본설계와 용역을 진행했고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기반시설과 구조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 현장의 여건을 확인하고 지역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진안군의 건의사항을 듣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안군은 사업의 혜택이 지역 경제에도 미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 선정, 산림치유원 랜드마크 조성 등을 산림청장에게 건의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을 통해 진안군은 치유와 힐링 관광 명소로 도약하려 한다"며 "또한 사업의 혜택이 관광객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주민과 산림치유원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2021년 전라북도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에 선정돼 도비 1억여원을 확보했다.(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로 가는 축제 서면마을 모습)

무주군, 농어촌 일자리플러스 공모 선정

무주군이 2021년 전라북도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공모(농어촌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여원을 확보했다.

'농어촌 일자리플러스 사업'은 농촌 지역의 일자리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역과의 협력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내년 1월부터 총 사업비 2억2,000만원(도비 50%·군비 50%)을 투입해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최일섭)와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일자리 문제는 인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우리 군과 우호관

계에 있는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자리 도·농 교류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사업 추진 부서인 농촌협력과와 주관 단체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소통과 교류에 주력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여 간다는 방침으로, '일하고 싶은 무주, 살고 싶은 무주' 조성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8년 1월에 설립돼 '마을로 가는 축제' 운영 지원과 시·군 역량강화, 도·농 교류 마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 주도의 농촌체험과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진행해 무주군 마을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4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 18일 폐회하고 2020년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29건을 처리했다.

위원회를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규)에서는 11

월 11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맑은 물사업소까지 7일간 군정 전반에 대해 꼼꼼하고 정확한 감사를 추진하였으며, 시정 12건, 개선 86건, 검토 36건 등 총 134건을 지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옥주)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9건 44억여원을 삭감, 4,520억여원의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확정했다.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조준열)에서

는 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관순)에서는 진안군 무릉농산어촌체험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진안군의회도 변함없는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면서 군민의 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올 한해 의정활동 마무리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29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중문)에서는 전 부서와 장수한우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20건, 처리 92건, 개선요구 25건 등 총 137건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의 개선을 요구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화식)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17

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장수군의회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4,687억원 원안가결 하였고,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건 50억원 감액하고 5건 3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감액금액은 예비비의 내부보유금으로 증액하여 총 예산액 4,259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 제출과 감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모범적으로 감사에 임한 홍두표 재무과장과 기획조정실 이연경 주무관에게 장수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행안부 2021년 간판개선 중앙 공모사업 선정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일대의 도심거리가 간판개선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무주군이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의 2021년 간판개선 중앙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를 확보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8,000만원을 포함한 3억6,000만원을 들여 총 연장 1,600m 구간의 106개 업소의 128개 간판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주의 자부담을 면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 우수기관 선정

장수군은 2020년도 전라북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군은 그동안 정보통신분야 평가 지표 성과 달성을 위해 매달 실적점검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해 왔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월 세 번째 수요 일을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로 운영하며 전 직원들이 PC보안 취약점 점검시스템을 실행해 자체적 보안 점검을 펼치고 있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정보보안 정책 및 전자정보 보안, 사이버위기관리 등 6개 분야 52개 평가항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하는 매우 엄격한 보안수준 평가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전 군민에게 마스크 5매씩 지원

진안군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비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1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5매씩 마스크를 지급한다.

이번 마스크 지급은 총 15만 장이며 (췌엘지산전(대표 박상영)에서 기부한 10만장과 (췌에코하이텍(대표 박종인)에서 기부한 5만장으로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를 통하여 마스크 5매씩 소포장해 지원한다.

진안군에서는 지난 4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면 마스크를 지급한 바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마스크를 기부해 주신 (췌엘지산전과 (췌에코하이텍에 감사드립니다"며 "모든 군민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가 없는 청정 진안으로 지켜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